

정론 눈부신 주부 신주

새해의 첫 전근길에 오른 우리의 눈앞에 눈부신 주부가 펼쳐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출근길에 나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찌하여 개강의 테프를 끊은 마식령의 스키주부가 떠오르는 것인가. 참으로 의미심장하였다.

2014년 새해를 앞두고 마식령스키장이 요란하게 개장된것은 세계가 조선을 또 다시 새롭게 알게 한 력사의 사면이었다. 로동당 만세가 터져나오는 뜨거운 심장을 안고 누구나 보란듯이 지켜내려는 새해안 그 주로를 보면서 세상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였을 것인가. 우리는 또한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사상, 우리 힘, 우리 식이 제일이며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 수 없다.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승리의 주로이다.

마식령,

우리는 지금 오색봉선들이 날아오르던 스키장지의 언덕에서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밑에 거대한 자태를 드러내놓은 은빛색의 주로를 보고있다.

눈부신 그 주로를 보니 불과 몇해동안에 너무나 큰 변화를 일으킨 내 조국의 변천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뜨거워진다. 우리의 꿈의 높이와 얼마나 올라갔는가, 그 꿈을 실현하는 우리의 힘과 속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볼수록 슬러니보다 이렇듯이로구나 하는 환희가 가슴속에 물결친다.

스키라는 말을 조용히 외워만 보아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나도 스키를 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배심종개 스키복을 차려입었다. 스키는 3살때부터 탈수 있으며 나이에 제한이 없다고 말해주는 봉사원의 목소리도 기쁨에 젖었다. 스키배우기는 로라스레도 배우기보다 더 쉽다는 봉사원의 말, 빠르게 익힐만, 늦어서 한주일이면 능히 배울수 있다는 봉사원의 이야기가 들으며 사람들은 용감하게 스키신을 신는다. 신발뒤축에서 나는 고정성착탈리라는 소리에 스키선수가 된듯 한 심정들이다.

근로하는 인민에게 부귀영화의 새 세계를 펼쳐주는 스키주로들이 은빛폭포마냥 산발들을 뒤덮고 인민을 위한 복구의 야경이 밤하늘을 비추는 마식령에서 조선의 새 문명이 창조되고있다.

대형전광판에서는 온도와 습도, 기압과 바람상태를 비롯한 스키주로지구의 기후상태가 실세없이 현시되고있다. 높고낮은 산발들은 최신기술과 미학의 요소를 새겨서 배부어 스며드는 대화봉에서 앞을 보니 동해의 푸른 파도가 인조고층 해돋이순에서 이 정점에 다시 오르코실은 육만이 가슴을 찌른다. 대화봉정점에서 눈이 내릴 때 기슭에

서는 비가 내린다는 마식령, 내려다보니 언제 어느때든지 눈노를 쓸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4개의 호수가 선명하게 보인다.

마식령스키장의 새 정서는 우리 조국이 젊어지고 인민이 젊어진다.

점점이 미끄러져내리는 선수들의 스키날에서 휘뿌러지는 눈갈기가 그치지 않아 다운 정서로 가슴에 깃들여진다.

어린이들과 로인들, 여성들에게 눈세계의 즐거움 분위기를 마련해주는 썰매주와 놀이장, 스케이트장도 있다. 어린이들이 리용할수 있는 썰매는 물론 어른들이 리용할수 있는 썰매도 언제나 준비되어있다.

흰눈의 광야가 펼쳐진 스키장에서는 현대적인 건물안에서 볼수 있었던 승강기도 돌아간다.

흰눈에서도 태연스럽게 흘러가는 승강기, 경사가 낮은 곳에서 스키를 탈 손님들은 승강기를 타고 오르며 되고 또 높은 곳에서 스키를 타려는 손님들은 삭도를 타고 오르며 되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따뜻하게 흘러넘치는 사랑의 주로이다.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한 삭도감시, 주로감시, 전력감시, 기상관측자료를 받아가지고 홍보해주기 위하여 영상카메라들과 통신선비행기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고 수십 개의 조각들로 된 영상화면들에서 스키장의 모든 정황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있는 중앙중심실은 어떤가, 불의의 정황에 대처할수 있는 의료봉사차소들은 물론 스키장에 온 손님들이 자기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있다.

현대적으로 건설된 마식령호텔은 물론이고 곳곳에 있는 휴식장에 들어가보면 난로에서 불이 활활 올라가듯 같은 모양을 한 장식용화로에 온몸이 따뜻해지고 스키를 신고도 비박을 질을수 있게 해놓은 고무갈판을 밟으면서 걸어가면 마음이 더 상쾌해진다.

바로 이런 훌륭한 곳에서 쉬움, 료차단설기, 감자편자반, 군고구마, 군감자, 군밤을 비롯한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음식들을 봉사받으며 싱글빙글 웃음을 띠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혼자 와보는 아쉬움을 금할수 없어 손전화기를 들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스키장의 상황을 알려주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최대경사각도가 리상적이고 서로 다른 지형에서 모험을 즐길수 있는 마식령스키, 한편 리턴 지도 모르게 단골손님이 되게 하는 마식령스키, 무도 마유도 절로 끊어지게 하는 마식령스키, 낮에도 멋있지만 밤에는 더 멋있고 마식령스키장, 스키를 탄 후에 다른 관광지들로 쉽게 갈수 있게 도로망도 편리하다 더욱더 마음 즐거워지게 하는 마식령스키장, 이 땅의 모든 현실이 진정한 인민의것임을 증명하는 주로이다.

그 옛날 산새가 허여 함여 말들도 쉬여가는 령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마식령이라고 불렀다는 이곳에서 인민들이 스키신을 신고 체육문명의 새로운 최첨단을 활보하게 되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문수물놀이장의 물미끄럼대를 타면서 꿈과 같은 현실에 웃음소리도 높아졌던 인민이었다.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서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말고삐를 손에 쥐며 신비한 세계에서 웃음짓던 인민이 아니었던가.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손길에 떠받들리어 나날이 더 높은 곳으로 성큼성큼 올라가고있는것이 행복하고 충구하여 감사의 정에 눈물을 흘린 인민이 오늘도 스키신까지 신어보면서 더 높은 문명에 오 올라가고있는것이다.

스키는 고급한 운동, 사치한 운동종목이라고 말한다. 축구나 농구, 배구는 아무 사람이나 할수 있어도 스키만은 아무 사람이나 할수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스키장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스키타기에 필요한 장구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싼데로부터 생긴 자연스러운 편견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남들은 리해하기 힘들것이다. 아마도 남보다 유족한 생활을 누린다고 말할수 없는 조선사람들이 어떻게 스키신까지 신게 되었는가.

자주와 정의의 주로이다.

우리 인민이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며 자기식대로 마음껏 영영해나가는 포부를 원수들은 무서워하며 배아파한다.

은 세계가 조선을 작은 나라로 깔보게 하고 힘이 없는 나라로 경시하려 하고하며 우리 힘이 하고싶은것이라하며 여느것이나 무작정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비열하게 책동하는 적들인가.

위대한 령신과 로고의 자유이 갖는 애국애민의 주로이다.

마식령스키장은 인민을 품어안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의 목적과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을 어떤 높이로 령도해가실것인가 하는것을 그림으로 아니라 현실로 말해준다.

미재와 그 추종분자들의 고립압박책동에서 고난의 만길을 걸은 조선사람들이 언제 이런 황홀한 스키장에서 스키타를 할수 해보았을것인가. 현대적인 스키장은 우리 생활과 아직은 먼곳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 원수님께서 그런 현실에 도전하시였으며 매일에 붙어있는 결과를 오늘에 알맞게 주시는 건설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하기에 스키신을 신은 우리의 가슴속에 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아직은 너무도 먼곳에 있다고만 생각하던 향유의 세계에 성큼 올라서고보니 고난을 겪는 인민을 그렇게 또 그렇게 품어 스키장우에까지 세워주시는 그 품이 고마와 오 나라 인민이 눈물을 적신다.

스키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생겨났는가.

옛적사람들이 눈에 빠지지 않고 먼길을 가기 위하여 나무가지같은것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었던가. 그것을 살펴보고 하였고 그 설과 그 후에는 스키로 발전하게 되었다. 공업이 발전하고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눈길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 신었던 그 신발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였다. 그대신 인간의 가장 고급한 문명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러한 최첨단의 체육문명이 인민에게 안겨주려고 그렇게 마음 많이 써오신분, 인민들이 이 스키장에서 웃고 떠들면서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호호해진다고 하시면서 마식령스키장건설의 초행길을 걸어오신 그 발자국자국이 눈속에 뜨겁게 새겨여있다.

스키를 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스키는 인생을 개선시킨다고 말하기도 한다. 마식령스키장은 몇몇 사람의 인생을 개선시키는 유흥장이 아니다.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인민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될 인민의 스키장이다.

수익의 인구가 살고있는 이 지구에서 어느 나라 공민들이 눈갈기잡는 스키주로서 자기와 맞는 체와 메일을 대하여 이처럼 주부에 넘쳐 말할수 있는가.

우리의 운명과 앞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주로이다.

우리 인민은 당을 따라 걸어온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걸어오길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부풀었지만 오늘에 와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굳지않아 말한다.

오직 승리와 변혁의 날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허리띠를 얼매면 졸라매면서 투쟁

10만, 36만, 46만, 53만... 우리 원수님께서 타고 오셨던 삭도의자에 앉아 스키장정점에 오르느니라 생각도 깊어진다.

희망한 새해를 눈앞에 둔 그날은 참으로 열마나 기쁜 날이었던가.

일꾼들이 만류하고 또 만류하였지만 《길들이기》 작업중에 있던 삭도의자, 차가운 철 물에 성큼 앉으시던 우리 원수님, 인민들이 리용할 모든 주로들을 다 보셨다고 하시면서 대화봉정점까지 오르신 원수님의 그 모습.

완공된 스키장에서 인민이 탈 삭도의자를 먼저 타보시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던 자애로운 모습은 변역으로 가는 조선의 길을 막아보려고 그렇게도 악랄하게 도전해나서는 적들을 절멸케 하는 백두령장의 기상이었다. 천만리의 군인을 한눈에 안고 오이까지 어떻게 걸었기같은 은 세상에 보여주시는 백두령장의 위대한 정치적인 선언이었다.

위대한 령신과 로고의 자유이 갖는 애국애민의 주로이다.

마식령스키장은 인민을 품어안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의 목적과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을 어떤 높이로 령도해가실것인가 하는것을 그림으로 아니라 현실로 말해준다.

미재와 그 추종분자들의 고립압박책동에서 고난의 만길을 걸은 조선사람들이 언제 이런 황홀한 스키장에서 스키타를 할수 해보았을것인가. 현대적인 스키장은 우리 생활과 아직은 먼곳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 원수님께서 그런 현실에 도전하시였으며 매일에 붙어있는 결과를 오늘에 알맞게 주시는 건설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하기에 스키신을 신은 우리의 가슴속에 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아직은 너무도 먼곳에 있다고만 생각하던 향유의 세계에 성큼 올라서고보니 고난을 겪는 인민을 그렇게 또 그렇게 품어 스키장우에까지 세워주시는 그 품이 고마와 오 나라 인민이 눈물을 적신다.

스키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생겨났는가.

옛적사람들이 눈에 빠지지 않고 먼길을 가기 위하여 나무가지같은것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었던가. 그것을 살펴보고 하였고 그 설과 그 후에는 스키로 발전하게 되었다. 공업이 발전하고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눈길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 신었던 그 신발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였다. 그대신 인간의 가장 고급한 문명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러한 최첨단의 체육문명이 인민에게 안겨주려고 그렇게 마음 많이 써오신분, 인민들이 이 스키장에서 웃고 떠들면서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호호해진다고 하시면서 마식령스키장건설의 초행길을 걸어오신 그 발자국자국이 눈속에 뜨겁게 새겨여있다.

스키를 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스키는 인생을 개선시킨다고 말하기도 한다. 마식령스키장은 몇몇 사람의 인생을 개선시키는 유흥장이 아니다.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인민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될 인민의 스키장이다.

수익의 인구가 살고있는 이 지구에서 어느 나라 공민들이 눈갈기잡는 스키주로서 자기와 맞는 체와 메일을 대하여 이처럼 주부에 넘쳐 말할수 있는가.

우리의 운명과 앞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주로이다.

우리 인민은 당을 따라 걸어온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걸어오길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부풀었지만 오늘에 와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굳지않아 말한다.

오직 승리와 변혁의 날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허리띠를 얼매면 졸라매면서 투쟁

투쟁만을 생각하였던 인민, 고생은 우리가 할! 향유는 후대들에게! 라는 웨침으로 심장 불태우며 먼길을 걸어가는 인민의 눈앞에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고급한 환경들이 펼쳐지지 않았는가.

살림집도 병원도 물놀이장도 모든것이 그렇다.

다른 나라의 제벌들이 맞붙수 있는것이 라고도 일평처럼 어떻게 꾸민것을 들이대고 장설계도 그림도 아닌 현실로 보았다. 그속에서 우리 인민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생활과 미래를 보는 눈이 높아졌다.

이것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중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당을 따라 천만리길을 걸어난 우리 인민을 사랑의 품에 안아 문명도 인도해주시고 눈을 띄워주시었다. 아득하게 생각했던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져다주시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인민의 리상과 포부를 앞당겨 실현해주시기 위하여 《마식령속도》와 같은 건설적인 속도도 창조하도록 하여주시였다.

행복의 주로에 눈이 내린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밑에 변역의 새 주로들이 깔리며 일어나고있다.

굳지않은 이 위대한 현실을 체현하니 우리 수령님의 회고의 말씀들이 떠오른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고생스럽게 지내도 조국을 해방한 다음에는 싸운 보람을 느끼게 될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해방한 다음 삼천리강토에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를 세우자고 한다. 착취하는 사람도 없고 압박받는 사람도 없으며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골고루 잘사는 인민의 탁월한 세우자는것이 다. 그때에는 세상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보고 부러워하게 될것이라고 유격대원들에게 호소하시던 청년장군의 정의 불타는 음성도 기억에 울려오는지만 같다.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념원을 안으시고 눈내리라는 강행군길을 그렇게도 많이 걸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모습도 가슴속에 차오른다. 인민을 위한 높은 리상을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대를 이어 해를 오신 혁명의 길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가시며 건설적인 기적들을 단숨에 안아오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눈앞에 진격의 주로가 펼쳐졌다.

조선에서 어찌하여 2013년과 2014년이 교차되는 력사의 분기점에서 마식령스키장의 개장을 선포하는 요란한 환호성이 터져오른것인가.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듯 희망한 주로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그 어떤 천지공자가 당차와도 오직 공격 또 공격, 정복 또 정복, 승리 또 승리만이 있을것이라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새해에 우리가 점령해야 할 목표도 오직 당착을 시련이 클수도 있다.

그러나 눈이 오는 김정은동지적 혁명의 전투에 놓여있는 우리 앞날은 희망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담겨주시는 우리의 주로는 얼마나 멋있는가.

조국이 없어서 마라순주로에 나서면서는 눈물을 뿌려야 했던 식민지민족을 세상에 서게 한 영웅은 민족의 모습으로 세계에 내세워준 위대한 대한원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고 온 세상이 들쭉하게 장군복을 누리는 조선사람의 증지를 더치며 마라순주로를 제일 앞자리에서 달려오던 체육인의 모습도 눈앞에 떠오른다.

누구나 새해의 언덕에서 《마식령속도》라는 그 말을 다시금 새겨보자.

마식령에 스키장이 건설된다는 보도가 나고 백두령장의 격동에 넘치는 호소문이 전파를 타고 전해질 때 불과 반년만에 대화봉에서 스키선수들의 행렬이 쏟아져내리리라고 꿈엔들 생각했었다. 이 완공의 날을 위하여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이 인민과 어깨걸고 어떻게 싸웠는가를 생각해볼 때 가슴이 미어진다. 그들이 한지에서 먹고 자고 일평처럼 어떻게 꾸민것을 들이대고 장갑차가 맞아서면 돌집으로 타임물을 실어 나르면서 스키주로를 한치한치 닦아나갔던것이다. 그리고 2014년 새해를 앞둔 12월 31일에 거기에 완공의 테프를 끊었다. 조선은 결실한 신년사에 가슴설레인다.

우리아래 맺어있는 주로는 《마식령속도》로 내달려야 할 창조적의 주로이다.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의기의 불바람을 세계에 일케 한 조선의 변역의 변역의 변역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신년사에 가슴설레인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가슴에 품고 새해의 전근길에 나서며 가슴벅벅인 날들도 많았지만 오늘과 같이 이처럼 아름답고 거창한 설계도를 안고 전근길에 오른 새해가 또 있었는가.

우리아래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반대하며 우리의 앞길에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에 굳기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천만군민을 부르른다.

모두다 위대한 포부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의 뒤에에 한마음한뜻으로 함께 몸쳐 새해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힘있게 싸워나가고 호소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승리의 주로에 기발처럼 뿔났다.

자기에 또 어떤 향유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지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 오늘의 조선인민이 지닌 크나큰 행운이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조선인민은 누구나다 행복해야 하기에 누구나다 강해야 한다. 남들보다 열배배로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우리는 남들이 상상 못하는 문명강국에서 살아야 할 존엄높은 인민이기에 창조적의 길에서도 단거리명수가 아니라 장거리명수가 되어야 한다.

하기에 신년제를 더욱 든든히 조여매자. 우리가 힘있게 나가는데 걸림돌은 원수 높을 보란듯이, 제와도 고립해들을 스키장건설까지 뻗치었던 원수들을 보란듯이 또 다시 아름다운 미래를 단숨에 창조해나가자.

《마식령속도》로 내달리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꿈과 리상을 최대의 속도, 최대의 시간만에 해낼수 있으며 해야 한다는것을 마식령스키장에 말해주시었다.

마식령은 우리의 아름다운 포부를 앞당겨 실현하는 길에서 최대로 빨리! 최상으로 훌륭하게! 라는 호소를 온 나라에 울려주셨다.

우리아래는 헛눈을 팔세도 없고 남을 쳐다볼 필요도 없다.

우리 식으로 문명을 창조하고 우리의 배심으로 시간을 앞당길수록 우리의 리상은 더 가까이 우리의 생활로 꽃피리라 될것이다.

우리의 리상과 포부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권처럼 행복과 변역의 주로를 힘있게 담아가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르시는 문명강국의 저 높은 언덕에서 어서 가자. 용감하게 달려가자!

송 미 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 본사기자 리 민 경 찍음

활발히 진행되는 신년사 학습

피현군 하단리당위원회에서

피현군 하단리당위원회에서 신년사 학습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의 사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올해의 총진군에서 신년사학습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리우어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이 신년사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리도록 떠밀어주고있다.

그리고 농장의 초급일꾼들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밝혀진 올해의 투쟁과업과 방도들을 누구보다 깊이 학습하고 대응속에 들어가 학습의 중요성을 진경하도록 하고있다.

올말년 새해 첫 영농전투로 들끓는 작업현장에 나간 한 일꾼은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전진을 주타격방향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문명과 변혁을 담보하는 우월한 사회제도

인민대중이 오랜 세월 갈망하여온 교육은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전체 성원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나라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문명》은 극소수 특권계급, 부유계층을 위한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엄청난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학교를 중퇴하거나 돈벌이에 나서고있는 학생들은 헤아릴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막대한 치료비용에 병원에 가기를 포기하고있다. 《문명의 본보기》라고 외관스럽게 광고하는 미국의 대도시들을 보아도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세방조차 마련할수 없어 한지에서 새우깡을 잘 때 다들족에서 몇몇 부유한자들이 노는 데만도 수백만USS를 낭진하고있다. 이런 나라를 과연 문명사회라고 말할수 있었는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에서는 당, 정권기관, 문화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철저히 인민대중의 복리를 위해 조직되며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가 전체 인민들의 보다 문명한 생활을 꽃피우는데 들켜지고있다.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안살책동으로 시련과난관이 겹잡이는 속에서도 우리의 우월한 무로의무교육제도와 인민보건제도가 자기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인민대학습당과 평양산원, 인민극장과 통일관 유원지를 비롯하여 세상에 자랑할만한 수많은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의 리용자는 다름아닌 평범한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이다.

난관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따라 변방없이 먼길을 걸은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부러워할만한 것들 중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견착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경제 인민을 문명한 생활의 향유자로 내세워주는 제일 훌륭한 사회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문명생활을 안겨주는 리상적인 사회제도이다.

오늘 《현대문명》을 자랑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이 더욱더 빈곤화되어가고있다.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문화기관들과 문학예술, 체육이 자본가들의 생활수단으로 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생활양식, 페르페터와 같은 잔인도덕부패가 쉬워지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회화적속들의 부패타락한 생활은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문명한 생활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가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의과 높은 수준에서 수행되며 고상한 도덕성을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키우는데 복무하고있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조국과 인민, 동지들과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데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는 숭고한 인성면, 도덕관을 체질화하고있으며 풍부한 정서를 지니고 문화적으로 생활화하는 우리 인민군인들과 근로자들의 건전하고 아름다운 정신적품으로 감탄과 부러움을 금지 못하고있다.

현실은 일심단결의 무한한 위력에 토대하여 머지않아 사회주의문명으로 솟아쳐올 우리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확신하게 하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끊임이 빛내어나가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문명건설을 확고히 담보하여주는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꿈과 리상을 최대의 속도, 최대의 시간만에 해낼수 있으며 해야 한다는것을 마식령스키장에 말해주시었다. 마식령은 우리의 아름다운 포부를 앞당겨 실현하는 길에서 최대로 빨리! 최상으로 훌륭하게! 라는 호소를 온 나라에 울려주셨다.

박 영 길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김정 은

민족단합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위력한 무기

은 겨례를 조국통일위업수행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부르는 위대한 지침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할 불타는 의지에 넘쳐있는 우리 겨례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례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적투쟁에 힘차게 뿔뿔 나섬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에는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이룩하는 력사의 철리와 온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거두어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철칙의 의지가 아리여있다.

어떤 운동에서든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 수 있다. 주체의 위력은 곧 단결의 위력이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서도 온 민족의 단결은 대결을 그 승리의 결정적 단초로 된다.

외세에 빼앗긴 자주권을 되찾고 민족의 통일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조국통일은 민족대단결을 떠나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조국통일은 민족성원들의 공동의 념원인것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선민의 뜻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운동에 뛰어들어야 한다.

만일 그 누가 민족단합을 등한시하거나 외면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조국통일의 한성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민족단합을 저

해하는 행위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외세에게 내맡기는 매국행위로서 역사와 후세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 수 없다. 우리 민족성원들에게 있어서 민족단합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저해하는가 하는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척도로 된다.

은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운동의 본질적요구이기도 하다. 조국통일운동에는 어느 개별적인 계급, 계층의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민족공통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문제가 있다.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운동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북과 남의 우리 겨례가 분리와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로 단합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의 주요과제인 동시에 최종목적이기도 하다. 민족의 대단결이 자 곧 조국통일이다.

우리 민족의 단합문제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타난다.

남조선에 현 《경련》이 들어선지 1년이 가까와오지만 북남관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는 더욱 격화되고있다. 일련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신티프로세스》라는것을 《예복정책》으로 들고나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으며 《원칙론》을 고집하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파탄시켰다. 온 겨례가 한결같이 바라는 북남관계개선문제에서 저들은 조금도 바뀐것이 없으며 중요한것은 그 무순 《원칙》에 기초하여 6.15 통일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남

북남관계》의 이 엄격한 현실을 우리 민족은 절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 그것을 바로잡을 힘과 능력이 바로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에게 있다. 정세는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력있게 떠밀고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힘차게 벌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지금이 야말로 해내의 우리 겨례가 사상과 리익, 정경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떠나 애국애국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조선민족의 단결된 힘을 과시해야 할 때이다. 온 겨례가 조국통일을 위해 하나로 굳게 뭉치면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책동도 철저히 무효시킬 수 있다.

세간의 많은 민족들이 단합하여 지역적안정과 자주적발전의 도모해나가고있을 때에 한피를 나누는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대결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루지 못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수치이다. 우리 민족에게 단합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 민족은 민족자주정신이 강하고 애국심이 남달라 강렬한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오랜 역사가 깎아지른 듯한 언어와 문화생활의 풍물성,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자주적으로 살아간다는 강한 민족정신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본의아니게 갈라져있지만 반드시 하나로 굳게 뭉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해외의 온 겨례가 자주통일의 길에서 뻗어있어 높이 들고나갈 가장 정당한 민족단합의 리념이다. 6.15 통일시대는 위대한 민족단

합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도전과 방해책동도 물리치고 반드시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용면으로 실증해주었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겠다는것을 온 세상에 공표한 가장 정당한 민족공통의 조국통일대강이다. 우리 민족이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자고 해도 그렇고 부강번영을 이룩하자고 해도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개별적계급, 계층의 리익이 민족공통의 리익보다 클수 없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는것은 민족공통의 리익을 옹호하는 길이며 그것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써만 실현할수 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분열을 배격하고 단합과 단결을 적극 실천하여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면 반통일세력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피죽도 아니고 력사도 아니한 우리 민족이 서로 굳게 단합할 때 그보다 더 공고한 단결, 그보다 더 위력한 힘은 있을수 없다.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굳게 단합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제 조선민족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새로운 신심에 넘쳐 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향적국면을 여는 승리의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통일운동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지금은 겨례의 가슴가슴은 거족적인 투쟁으로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은 70년간에 걸쳐 분열의 고통과 아픔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을 위한 길은 한층더 멀어졌을것이다. 그러나 고귀한 삶은 없다. 오늘도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례가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의 분열로 생겨난 제도상의 대립이나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의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누구나 민족공통의 요구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 몸바쳐 나서라는것이 중요하다.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제하면서 상대방을 배

척한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언제 가도 실현할수 없고 조국통일운동에서 뜻과 힘을 합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차이를 대담하게 벗어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뛰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고 권력투쟁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중북》으로 불어 탄압하는 반통일망동이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고 권력투쟁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중북》으로 불어 탄압하는 반통일망동이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고 권력투쟁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중북》으로 불어 탄압하는 반통일망동이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고 권력투쟁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중북》으로 불어 탄압하는 반통일망동이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거나 권력으로 억누르면서 통일운동의 자유를 말살하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것이다.

지난 온 한해동안 남조선당국이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외면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조국통일법민족련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강제해산책동에 기승을 부리며 남조선에서 통일운동을 벌일수 없도록 하는 어떤 망국에도 합리화될수 없는것이다.

조국통일운동의 거족적성격을 적극 살려나간다면 남조선에서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 중지되어야 한다.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속에서 개인의 생명에 있다. 나라의 통일에 결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조선사람들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가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정경, 계급과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사키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데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례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순결한 애국의 마음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장윤남

애국의 열정과 투지를 안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심장에 새기면서 한결같이 떨쳐나선 우리 겨례를 한없이 고무해주는 사대의 명령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령은 온 겨례를 참된 삶의 길,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의 길로 이끌어주는 고귀한 지침이다. 애국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다. 민족의 운명을 위한 투쟁을 결사키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것이 없음을 애국의 삶이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다운 애국은 조국통일위업에 헌신하는데 있다. 외세에 의하여 반세기가이상이나 지속되고있는 분열의 비극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수천년동안 한강토에서 하나

의 피를 흘리고 하나의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발전하여온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민족사적과제로 된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와 번영을 지향하고있는 오늘에 와서도 지난 세기에 이룩한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지 못하고있는것은 민족적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겨례에게 있어서 참을수 없는 수치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은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태도와 관점에서 표현되게 된다. 분열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애국애족은 조국통일이다. 민족의 분열을 가장 큰 아픔으로 생각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이 참다운 애국자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것은 더없이 고귀한 삶으로 된다. 조국통일은 전제 조선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고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명실공히 민족공통의 애국위업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있고 발전과 번영에 있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으로 된다.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주의의 길에서 변함없이 들고나갈 필승의 기치가 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뜻이 집대성되어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의 열정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자주통일운동은 한시도 멈출수 없다.

해외의 온 겨례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한평생이 이룩한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민족의 운명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것이 민족의 운명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것은 더없이 고귀한 삶으로 된다. 조국통일은 전제 조선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고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명실공히 민족공통의 애국위업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있고 발전과 번영에 있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으로 된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이다. 조국통일운동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면 외세의존의 길로 나갈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주의의 길에서 변함없이 들고나갈 필승의 기치가 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뜻이 집대성되어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의 열정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자주통일운동은 한시도 멈출수 없다.

해외의 온 겨례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한평생이 이룩한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민족의 운명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것이 민족의 운명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것은 더없이 고귀한 삶으로 된다. 조국통일은 전제 조선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고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명실공히 민족공통의 애국위업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있고 발전과 번영에 있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으로 된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이다. 조국통일운동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면 외세의존의 길로 나갈것이 아니라

남조선당국은 선례를 똑바로 해야 할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5일 《남조선당국은 선례를 똑바로 해야 할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올 해는 어버이길일성추수전개에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명령을 남기신 20위를 되새기고 지적하였다.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는 겨례의 가슴을 한없이 기쁨과 희망으로 부풀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인민들과 진보인사들은 물론 보수인사들도 신년사를 대서특필하고있으며 정치인들도 환영의 필증을 표명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독 남조선당국자들은 온갖 악의에 찬 비방장사

를 하면서 동족대결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망동은 날로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과 공동선언리행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새해에도 의연히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탈로 내맡기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제 재중조선인들의 이름으로 동족이 내민 화해와 신의에 대결과 악의로 대담해나서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을 준엄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려면 그 누구든 과거를 분분하고 함께 나아가것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아울러

도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천명하는 절제위인의 올해신년사에서 온 겨례의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 같은선로로 한민족의 민족의 평등과 자유를 쟁취하는것이 새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결의에 넘쳐있다.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겨례가 민족대단합과 북남관계개선의 희망으로 가슴벅차하고있는 이때 현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념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써줄수 없는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것을 들어주시고는 대대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새해의 벽찬 조국통일전진군에 들어선 온 겨례가 저들을 지켜보고있는것을 알고 선례를 바로해야 할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진행한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남조선 각계가 강하게 비난해나섰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결같이 《실망만을 자아낸 회견》, 《불통기자회견》이라고 평하였다.

민중당 원내대표는 집권자의 신년기자회견은 그의 불통만을 위한 회견이었다고 하면서 《소통을 원칙없는 타협이나 부당한 결락으로 생각》하는 그의 인식에 실망을 금할수 없다고 하였다.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쟁을 통해 집권자의 기자회견은 《자랑스런 불통》을 선포한것을 넘어 현 《경련》의 인식증거였으니 이제 민중은 냉정하고 준엄한 평가를 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 여의도정의당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불통정치에 대한 기억상실, 그자체이다》라고 개탄하면서 민중의 정당함을 옹호하고 《불법적 이메스기》로 규정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을 가차없이 탄압하겠다는 《시퍼렇게 날선 경고를 던졌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집권자가 불법적행위에 대해서는 지나간 문제라며 목랄하고 몽땅 날려버린 《북지》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으며 주권기법과 청년실업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였다고 하면서 집권자의 《진심을 믿을 민중이 얼마도 된것은》,》고 반문했다. 이어 현 《경련》이 불통 《경련》은 인식증거였으니 이제 민중은 냉정하고 준엄한 평가를 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 여의도정의당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불통정치에 대한 기억상실, 그자체이다》라고 개탄하면서 민중의 정당함을 옹호하고 《불법적 이메스기》로 규정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을 가차없이 탄압하겠다는 《시퍼렇게 날선 경고를 던졌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집권자가 불법적행위에 대해서는 지나간 문제라며 목랄하고 몽땅 날려버린 《북지》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으며 주권기법과 청년실업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였다고 하면서 집권자의 《진심을 믿을 민중이 얼마도 된것은》,》고 반문했다. 이어 현 《경련》이 불통 《경련》은 인식증거였으니 이제 민중은 냉정하고 준엄한 평가를 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 여의도정의당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불통정치에 대한 기억상실, 그자체이다》라고 개탄하면서 민중의 정당함을 옹호하고 《불법적 이메스기》로 규정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을 가차없이 탄압하겠다는 《시퍼렇게 날선 경고를 던졌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집권자가 불법적행위에 대해서는 지나간 문제라며 목랄하고 몽땅 날려버린 《북지》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으며 주권기법과 청년실업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였다고 하면서 집권자의 《진심을 믿을 민중이 얼마도 된것은》,》고 반문했다. 이어 현 《경련》이 불통 《경련》은 인식증거였으니 이제 민중은 냉정하고 준엄한 평가를 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 여의도정의당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불통정치에 대한 기억상실, 그자체이다》라고 개탄하면서 민중의 정당함을 옹호하고 《불법적 이메스기》로 규정하고 자기의

실망과 비난만을 자아낸 기자회견

기초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을 가차없이 탄압하겠다는 《시퍼렇게 날선 경고를 던졌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집권자가 불법적행위에 대해서는 지나간 문제라며 목랄하고 몽땅 날려버린 《북지》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으며 주권기법과 청년실업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였다고 하면서 집권자의 《진심을 믿을 민중이 얼마도 된것은》,》고 반문했다. 이어 현 《경련》이 불통 《경련》은 인식증거였으니 이제 민중은 냉정하고 준엄한 평가를 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 여의도정의당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불통정치에 대한 기억상실, 그자체이다》라고 개탄하면서 민중의 정당함을 옹호하고 《불법적 이메스기》로 규정하고 자기의

민중로총의 이전 중앙집행위원들은 집권자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기도를 포괄적으로 드러내놓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한편 인터넷에는 《정말 두렵다.》, 《열등 들으면 그럴듯 한데 가만히 보면 구체적인 집단은 하나도 없었다.》, 《국제적당시이다.》 등의 비난글들이 현일 올랐다.

남조선의 어떤 교수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세금이 뛰어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오는데 강아지이야기를 하며 히죽히죽 웃기 하고 경제문제에 동문서답하면서 기업들이 알아서 잘하라는 무책임한 소리만 내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집권자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는 그것은 그의 견해인것이

다. 부산통일연대는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의 분열 역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아내야 하는것을 외세에 대항하여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앞장서는 길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대학생단체는 민족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것은 시대적흐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다. 누가 우리 민족을 이 땅으로 끌라놓았든 누가 이 땅을 갈라놓았든 누가 이 땅을 갈라놓았든. 더이상 갈라져 살수 없다.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할 때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할 때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할 때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할 때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할 때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할 때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할 때다.

본사기자 라설하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 대규모련합상륙계획 발표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3월말 북침을 노린 대규모련합상륙계획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벌어질 이 북침전쟁연습에 주일미군소속 미해병대 5 000여명, 포위해병대 3 000여명을 포함한 1만여명의 병력과 대형수송기,

대형상륙함, 고속상륙정, 공기부양정, 잠정차, 잠수기 등 방대한 무력이 투입된다.

이런 연합상륙훈련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1989년 《유포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후 최대규모로 행할것이라고 한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새해벽두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에 그 어느때보다 광분하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우리 겨례의 지향에 대한 잔혹한 도전이며 조선반도에서 거어 부침전쟁의 불씨를 일으키려는 호전적망동이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7일 사설을 통해 괴뢰보수세력의 력사외곡책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7일 사설을 통해 괴뢰보수세력의 력사외곡책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7일 사설을 통해 괴뢰보수세력의 력사외곡책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7일 사설을 통해 괴뢰보수세력의 력사외곡책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7일 사설을 통해 괴뢰보수세력의 력사외곡책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7일 사설을 통해 괴뢰보수세력의 력사외곡책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7일 사설을 통해 괴뢰보수세력의 력사외곡책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7일 사설을 통해 괴뢰보수세력의 력사외곡책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남조선의 생명입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인간사랑의 화원속에서 복을 누리는 조선인민

태양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약속하며 밝아온 새해를 맞은 세계 진보적인류는 사상과 정도, 풍토도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 로 이신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호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력사에 이름을 남긴 정치가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처럼 그처럼 짧은 기간에 세인의 경탄을 자아낸 위인은 없었다. 이것은 세계정치사에 있어보지 못한 일이다.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비분으로 온 나라 아니 온 세계가 눈물의 바다, 비애의 바다로 변했을 때에 국제적 관심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로 쏠렸다.

로씨야의 소리 방송은 김정은동지께서 인류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의 거대한 관심을 모은 세계의 가장 젊은 령도자로 기록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망인터넷홈페이지는 지난 한해 동안의 보도자료를 종합한데 기초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2013년 국제인물명단의 첫 자리에 모시었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신뢰와 존경을 받고 계시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다.

오늘 백두산천출원인들의 이민주의 사상을 받들고 자신의 행동과 기쁨을 우리 조국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은 세계인류의 특보감으로 되고 있다.

로씨야신문 《우리의 집 초치》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방식에서 특징적인것은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그대로 계승하시어 인민사랑의 정치, 후대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는데 있다.

그이께서는 특히 인민생활 향상을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계신다.

살림집건설을 여러차례 찾으셨으며 완공된 많은 살림집을 일반주민들에게 무료로 안겨주시었다.

또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세계급의 유원지를 건설하도록 하시고 그 준공식에도 참석하시였다.

나예제리아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사상과 령도, 덕망에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 그대 로이신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고계신다. 김정은원수께서는 가장 고결한 충성과 숭고한 도덕리념을 지니시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혁명전진으로 더욱 빛나게 하시였으며 조선인민을 선대수령들의 유산 편에서 힘 있게 불러일으키시었다.》

우리 나라를 방문 하였던 국제 김일성상 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인 주제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

슈와나스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호모심을 표시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 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또 한분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을 김정은령도자의 사상과 뜻대로 해나가고계신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체적예지와 절충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조선인민의 미래는 창창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위업, 업적은 세기를 이어 빛날것이며 진보적인영광의 길에있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어찌 이뿐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고 가신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없이 고매한 인격적품모양에 세계가 머리를 숙이고있다.

방글라데시 블리프진문사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위업, 업적은 세기를 이어 빛날것이며 진보적인영광의 길에있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어찌 이뿐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고 가신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없이 고매한 인격적품모양에 세계가 머리를 숙이고있다.

방글라데시 블리프진문사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어머이, 이 세상 끝까지 따를 운명의 태양이시더.

영국선군정서연구회회는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12월의 대국상의 나날에 있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김정일장군님 그대 로이신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축도이다.

김정은동지처럼 자신의 아픔보다도 김정일동지를 그리며 몸부림치는 인민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다스린 사랑을 부여 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 위대한 령도자는 동서고구에 없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고 찬란금도 아가울것이며 굶고 일군들은 인민의 심부름꾼, 시종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좌우명이며 인생관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인격적정치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은 보다 굳건해지고 인민사랑의 화원은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질것이다.》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바치신 헌신의 세계는 끝이 없다.

어느때 봄날에 불철주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내가 밤을 새우며 일하는데 대하여 걱정하는데 일없다고, 나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풀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뿐

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터놓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모두가 인민의 아들딸들이다.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인민의 아들딸답게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추켜세워 기어이 내 나라, 내 조국을 인민이 잘살고 모든것이 흥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워야 한다. ...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이민주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색과 실업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앞장서 쫓아나가고계신다.

하기에 인민주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변함없이 펼쳐지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두고 국제사회계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주의, 고매한 인격적품모양을 높이 찬양하고있다.

김포자신문 《크미에 아마 따》는 《어머님의 위대한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민에 대한 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 그이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품도는 그이께서 지니신 투철한 인민주의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

하며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며 대하여 당부하시었다.

그이께서 새겨가시는 인민사랑의 화복은 공장과 농촌, 마을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방방곡곡에 꽃피어 펼쳐지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누구나 감격을 일런단신 받들어 같이 일떠세워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차, 향일의 내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6돐에 즈음하여만 마에서는 경축집회와 우리 나라 도시, 사전전선회화,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서는 파당회가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초상화,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승려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불세출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러는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그의 선군혁명정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말레이시아 베트라헤어 리사 리 알렉스 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정숙녀사는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녀성의 몸으로 악독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시었다.

그이처럼 녀성의 몸으로 무장을 들고 일제와 맞서싸운 전배를 나는 아직 잊어보지 못하였다. 김정숙녀사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명도말에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대적도 단애에 쳐부실수 있는 강력한 타격수단을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위용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리라고 확신한다.

파키스탄조선전선회화 카라치지부 서기장 지베드 안사리, 카라치주체연구센터위원장 굴람 라바니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승려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불세출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러는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그의 선군혁명정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말레이시아 베트라헤어 리사 리 알렉스 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정숙녀사는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녀성의 몸으로 악독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시었다.

그이처럼 녀성의 몸으로 무장을 들고 일제와 맞서싸운 전배를 나는 아직 잊어보지 못하였다. 김정숙녀사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제패를 노린 정찰강화책동

미국이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일본에 배치하여 우리 나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함포도 배치하고있는 무인정찰기 태풍의 영향으로 운용되지 못할수도 있다

한편 미국도 상인이 고성능레이더를 일본에 설치하는데 쓰는 비용을 포함한 2014회계년도 포괄적인 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은 함포에 있는 엔터스공군기지를 리용할수 있도록 2비행장을 건설하고 일본 본토에 있는 항공자위대기지에 《X-랜드》 레이더를 설치하는데 1500만달러를 지출하는 문제로 포함하였다.

미국이 무인정찰기를 조선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배치한다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무모한 실천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은 일본서부해안에 있는 기지에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북조선의 장기리미세일 계획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으로 발표하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위협》을 부르짖는것이아말로 강도가 강도야 하는 격이다. 전문여론조사기판이 최근에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최대의 위협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미국이 다른 그 누구의 《위협》을 떠벌어오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압 살책중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의 종합국력이 날을 따라 크게 과시되고있는 데 대해 불안을 느끼고있으며 어떻게 해서나 우리를 압살해하려고 필사적으로 말하고있다.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에서 무력충동에 박차를 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미국이 무인정찰기를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에 출격시키려는 데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저들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세계제패야망을 기어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미지배층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의 국방전략을 내놓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과의 대결을 격화시켜 정세를 초진장상태로 끌고간다는 저들의 침략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을 새워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억측이 아니다. 미국은 본토와 함포, 하와이, 일본 등에 방대한 핵타격수단을 전개해 놓고있다. 일의의 시각에 침략전쟁을 도발할 기회를 노리고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날로 격화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지역 정세에 표시하고있으며 평화와 안전보장을 바라고있다.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미국은 여러척은 기도를 버려야 한다.

이 단합하여 나라의 발전을 이룩할 것을 호소

남아프리카대륙형 자코프 케틀레이홀레씨가 주자가 신년사에서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인종과 신앙, 성별, 계급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체 인민

나라의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립장 표명

가가지대에 대한 공습만행

이 단합하여 나라가 직면한 온갖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여야 하며 누구나 다 국가발전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에 힘을 넣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국내총생산은 8% 성장시키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정부기관들이 발전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립장 표명

가가지대에 대한 공습만행

중국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등이 열마진 2014년도 《3개 부분의 농촌진흥》 활동단계에 관한 통지문을 하달하였다.

통지문은 중앙의 정신을 성실히 관철하고 2014년도 문화, 과학기술, 보건 《3개 부분의 농촌진흥》 활동을 심도있게 전개하며 사회의 각계 력량을 광범히 동원하여 사회주의 새 농촌건설을 추동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지문은 각기 유관부문들에서 《3개 부분의 농촌진흥》 활동을 당의 군중로선을 실현하고 작풍을 확실히 개선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여기고 그에 대한 조직지도를 강화하며 신속성으로 다양하며 인민들에게 편리하고 리로운 활동형식을 강구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이란에서

이탈리아에서

《칼리 세트》로 명명될 이 위성에서는 2013년에 갖난이아사람들이 1000명당 2명으로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캄보디아에서

아랍재정국련방에서

아랍재정국련방에서

《칼리 세트》로 명명될 이 위성에서는 2013년에 갖난이아사람들이 1000명당 2명으로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캄보디아에서

아랍재정국련방에서

아랍재정국련방에서

꾸마국 가리사회 위원장

적들의 침략책동과 위협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립장 천명

꾸마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라울 카스트로가 최근 혁명승리 55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경축행사서 연설하면서 적들의 침략책동과 위협앞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꾸마혁명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동지와 함께 이룩한 혁명승리와 오늘과 같은 날을

생각조차 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자기가 나라가 지난 55년간 혁명의 진취적인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고 제국주의지배를 재현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미국과 맞서싸웠다고 하면서 그는 혁명적 매복과 마피아의 소굴로서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꾸마가 오늘날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가는 혁명적인 나라로 전변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꾸마공산당을 인민들과 리합시키고 당의 단결을 파괴하려는 적들의 화위 책동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꾸마는 앞으로 사회주의사상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지금 령회회족자치구에서는 방풍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베이징발 본사특파기자 백 산 해

오늘의 세계

중국의 황하중류연안에는 녀화회족자치구라는 토지사막화가 가장 심한 지역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

자치구가 사막으로 둘러싸여있어 모래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다. 이 자치구는 특화면적이 적고 날씨가 건조하며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이다.

1970년대말 중국이 동북, 화북, 서북지역의 방풍림조성사업을 진행한 때부터 이 지역은 방풍림 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자치구에서는 토지사막화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하여 왔다.

남부지대에서 수분과 토양을 유지하고 수원을 보호하는것을 목표로 바늘잎나무들과 넓은잎나무들로 혼림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끈기있게 밀고나갔다.

북부지역에서는 높고 안정적 인 농산물의 수확을 목표로 표준화된 밭보리밭과 방풍림, 경제림조성사업을 내밀고있다.

어려동안 진행된 사막화극복사업과 방풍림 조성, 천연기념물의 보호 등 생애환경개조사업이 적극 추진되어 이 지역은 점차 특색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다.

생태 환경의 개선으로 경제림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지역의 사막화 면적이 1970년대에 비해 2010년에 50만 ha 줄어 들었으며 루지면적은 방풍림조성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한 이래 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도, 구기자, 대추, 사과를 기본으로 한 경제림면적이 수십만ha에 달하고 밭과 방풍림을 통한 총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 녀화회족자치구에서는 방풍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베이징발 본사특파기자 백 산 해

미군 병력 손실 증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항쟁세력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 미군의 병력손실이 증가되고 있다.

7일 미 국방성은 아프가니스탄전장에서의 지리 지금까지 이 나

미군 병력 손실 증가

라에서 죽은 미군병사수가 2165명으로 증대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상자수는 1만 9558명으로 발표되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야스쿠니신자참배에 대한 강력한 항의규탄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6일 일본수상 아베가 취임한지 1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야스쿠니신자를 참배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이것은 지난 세계 일제의 침략으로 하여 깊은 상처를 입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허비는 또 하나의 악행이며 정의와 량심에 대한 모욕이고 정면도전이다.

국제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저주와 규탄을 퍼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중국에서 일본수상의 야스쿠니신자참배문제와 관련하여 반일감정이 폭발하고있다.

중국의 교부상 양의는 자국주재 일본대사를 호출하여 아베의 야스쿠니신자참배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그는 야스쿠니신자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일본군국주의의 침략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심각하게 반성하는가 하는것이며 이것은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관계되는 중대한 원칙적 문제이다. 중국측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세계인민들과 함께 좋은 일본정착자 시기와 형식에 관계없이 야스쿠니신자를 참배하는것을 명백히 그리고 강력히 반대하였다. 야스쿠니신자참배와 같이 역사의 흐름에

영행된 중당에는 제 발등을 채가 짚게 될것이며 일본은 계속 역사를 되돌아볼것이다.

중국의 위안정치는 아베의 야스쿠니신자참배와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서 그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아베의 행위는 중국정부와 인민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준렬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수상인 아베가 야스쿠니신자를 참배한것은 절대로 일본의 내정이나 개인적인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아베가 환상을 버리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역사시야이론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신의를 더욱 잃게 될것이며 역사무대에서 철저히 패배자로 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위안정치는 아베의 야스쿠니신자참배와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서 그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아베의 행위는 중국정부와 인민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준렬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수상인 아베가 야스쿠니신자를 참배한것은 절대로 일본의 내정이나 개인적인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아베가 환상을 버리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역사시야이론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신의를 더욱 잃게 될것이며 역사무대에서 철저히 패배자로 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위안정치는 아베의 야스쿠니신자참배와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서 그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아베의 행위는 중국정부와 인민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준렬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수상인 아베가 야스쿠니신자를 참배한것은 절대로 일본의 내정이나 개인적인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아베가 환상을 버리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역사시야이론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신의를 더욱 잃게 될것이며 역사무대에서 철저히 패배자로 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참혹한 피해를 당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함께 중국도 빼어난 사랑을 입었다.

신천초목도 물러서서 일본과의 파의 반민족적리악을 일면적 용서할수 있으며 역사속에 묻어 주실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과거죄행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고사하고 정의와 진리에 역행하고 역사에 대적하고있다.

일본의 극우익보수정객들을 비롯하여 중국측의후대들은 지난 기간적하면 야스쿠니신자참배를 침략력을 찬미하고 제국시대의 망령들을 부르도록 하였다.

자기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새해 첫날에는 홍무상이 야스쿠니신자를 참배하여 또다시 사상사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제침을 꿈꾸는자수들이 야스쿠니신자를 참배하고 중국측의 망령들과 무슨 속사정을 나누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현실은 일본반동들이 미국측의 부활책동에 얼마나 피눈물이 날까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화 책동은 극도에 이르렀고 《중기방위계획대강》과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고 군비증강과 《자위대》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인권모략소동을 규탄하여 시위

범죄 성행

지 진

본사기자 리 철 력